

” 원유(原乳) 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의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에서
우유 1 kg당 평균 생산비 359.76원으로 나타나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국민 식생활 패턴이 고급화되고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의 낙농업은 20여년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괄목할만한 양(量) 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유치(幼稚) 산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체질이 튼튼하지 못한 데에다 경영구조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낙농가들의 원유(原乳)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본 협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을 한국농업경제학회(김 동희 교수, 김 영철 교수, 민 병렬씨)에 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착수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난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우유 생산비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농업경제학회의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에 의하면 조사분석기간인 '83년 8월 1일에서 종료일인 '84년 7월 31일 현재까지 kg당 평균 생산비가 329.05원으로 나타났고 조사기간 이후의 인상요인을 적용하여 보면 '84년 11월초 현재의 생산비는 359.76원으로 나타남으로써 지난 '82년 4월 1일에 kg당 313원으로 책정된 현행 원유가격은 생산비에 훨씬 못미치고 오히려 생산비가 원유가격보다 14.9%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낙농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번 「낙농업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본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낙농업관계 협동조합장 연서로 제출된 대정부 건의서를 소개함으로써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활동사항을 알리고자 한다.